

중소기업과 가계 신용위험에 빨간불

- 3/4분기 중소기업 및 가계 모두 신용위험 상승세가 더욱 커질 전망
-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 가계의 일반자금 수요로 대출수요 역시 높은 수준이 이어질 전망
- 그러나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기조가 약화되어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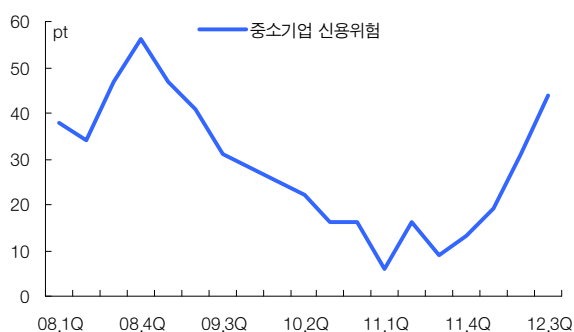
중소기업은 신용위험 상승으로 부채증가의 악순환 우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세가 3/4분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은행들은 중소기업이 내수경기 둔화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경기민감 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유로존 재정긴축과 경기침체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제조업체의 신용위험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신용위험지수 2/4분기 24, 3/4분기 전망치 38). 대기업 역시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에 따른 수출둔화 우려 등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용위험지수의 절대수치(2/4분기 3, 3/4분기 전망치 13)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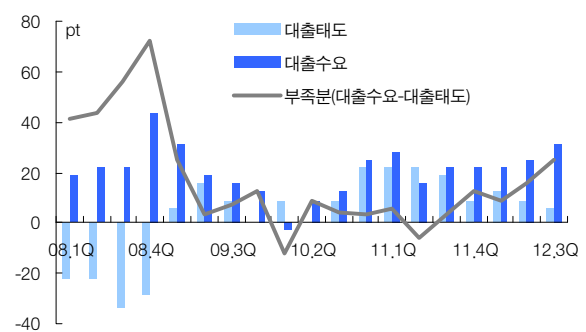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어 영업현금흐름 창출 규모가 감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고 운전자금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대기업보다 클 수 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이 감소하면 외부조달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번에 같이 조사된 '대출수요지수'와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중소기업의 은행권 조달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4분기 25에서 3/4분기 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2/4분기 9에서 3/4분기 6으로 완화기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은 실적악화와 외부조달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어 신용위험 상승은 부채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그림1〉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상승 추이



자료: 한국은행, HMC투자증권

〈그림2〉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와 대출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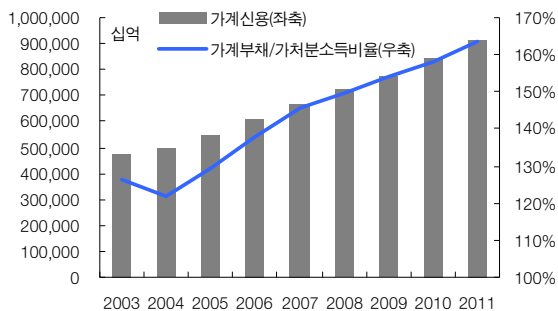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HMC투자증권

가계부채문제

최근 부채 규모의 빠른 증가속도와 소득여건 악화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계 부문 역시 3/4분기에 신용위험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4분기 22, 3/4분기 전망치 38). 국내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9% 내외의 빠른 증가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가계일반자금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를 살펴보면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2/4분기 -3에서 3/4분기에도 -3으로 전망되어 대출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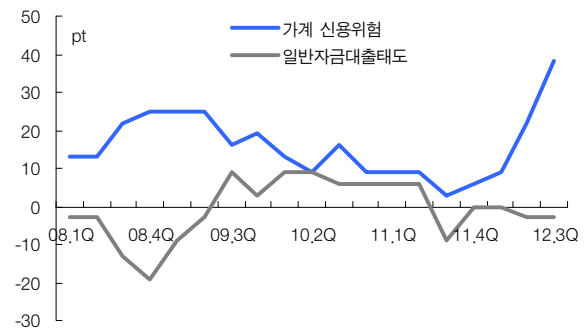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저소득계층의 비은행권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금융권의 대출태도 강화로 상대적으로 소득 및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상호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어 가계 역시 부채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그림3〉 국내 가계신용과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자료: 한국은행, HMC투자증권

〈그림4〉 가계 신용위험과 일반자금 대출태도지수



자료: 한국은행, HMC투자증권

크레딧위험 증가는 현재진행형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유로존에서 나오는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연초 이후 유지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은 요구수익률을 낮추기 보다는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고금리의 신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경기둔화를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고금리의 유혹에 빠져 역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때이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